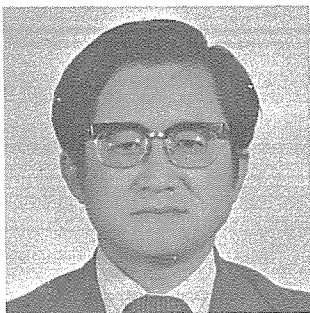


노벨科學賞

“우리도 탈 수 있다”

金 貞 欽

〈高麗大教授·物理學〉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민족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賞인 노벨상. 과학자라면, 문학자라면, 그리고 경제학자라면 한번은 꿈을 꾸어보는 권위있는 賞. 학자로서 더 이상 바랄것 없는 최고의 문화상이 노벨상이다.

그 노벨상의 15%는 유대인이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 84년간의 통계가 그것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국적은 각각 달랐으나 세계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세계인구의 1%도 안되는 유대인이 全受賞者의 15%나 차지한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왜 유대인은 노벨상 수상에 선수권민족인가? 유대인은 정말로 그렇게 능력있는 민족인가? 그리고 우리 배달민족과는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教育熱이 대단한 유대인

유대인은 돈벌이에 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 유대인의 가장 특출한 점은 모든 방면에서 재능이 있다는 점이다. 재능이 있으니 돈도 벌게 하고, 학문분야에서나 예술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黑人들이 스포츠의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했듯이 특출한 재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 재능은 타고난 재능일까?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재능은 환경이 만들어 준 것이라 믿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교육이 그것을 만들어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사실 유대인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지구는 국민학교에서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한다. 유대인 가족들의 극성에 의해 아동이나 생도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참고도가 높기 때문이란단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 유대인들은 어렸

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20권으로된 1만 2천 페이지의 「탈무드」(Talmud)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갖가지 지혜가 들어 있다고 한다. 「탈무드」는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지혜를 제공해 주는 책이라 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방법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 지식의 나열보다도 확실한 지혜를 한가지 한가지 구체적 예를 통해 체험을 시킨다고 한다. 그 결과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아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예컨대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비율은 3%에 불과한데 전국의 유명대학 교수의 약 30%는 유대인으로 점유되고 있다 한다.

또 세계적으로도 역사상 이름을 남긴 각계의 제1인자중에는 유대인들이 유난히 많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사상가 마르크스, 심리학자 프로이트, 작가 토마스만, 지휘자 번스타인등을 위시로 대재벌 로스차일드나 모르간, 정치가겸 정치학자 키신저 등등, 고금에 걸쳐 세계의 중추적 지위에 머물면서 전세계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등 모든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대인 성공의 비밀

유대인의 성공의 비밀은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주인공으로서의 자기자신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대민족 5000년 역사의 긴 전통과 지혜였던 것이다. 긴 역사에 의해 배양된 유대인 특유의 전통이 성공율이 높은 민족을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세계에는 유대인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갖는 민족은 적지 않다. 중국, 그리스, 이집트, 인도, 이라크등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중국인·그리스인·이집트인·인도

인·이라크인의 어느 민족을 예로 들어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유대인과의 차이점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중국·그리스·이집트·인도·이라크등과 같은 나라는 그 긴 역사나 전통이 아무라 자랑스러운 것일지언정, 그것은 한낱 과거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을 산 교육으로서 받아들여 그것을 하나 하나 되씹어가면서 앞으로의 전진을 위한 정신적 양식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즉,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단순한 기록으로서 책장 위에 놓아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과거에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품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미래지향적 민족성이 그들의 재능을 길렀고, 근면성과 불타는 向學心이 이에 추가해서 그들의 활동분야를 빛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래지향적 한국인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 국민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어느 나라나 역사상 흥한 시대는 그나라 전체가 희망에 차 전진적자세를 취한 시대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나라 전체가 이런 정신적 자세하에 전진에 전진을 거듭해왔다. 예컨대 지난 60년대초 80~100\$에 불과했던 1인당 GNP가 현재는 1800\$선으로 올라갔고, 3000~4000만\$이었던 수출은 250억\$ 선으로 꺾충 뛰어올랐다. 면직물·자전차생산등의 미미한 공업수준에서 26만톤 유조선 건설,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소형자동차의 생산과 그 수출, 컬러TV, 전자렌지등을 위시로 각종 가전제품의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선진국이 200~300년을 걸친 공업화과정은 불과 20~30년사이에 이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1990~2000년대에는 세

계의 선진국대열에 걸려고 계속 전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과학분야에서도 활약하는 한국인

공업화과정의 눈부신 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그 공업화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과학분야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예컨대 필자가 소속되고 있는 물리학의 경우 1945년까지 졸업한 물리학전공의 이학사는 11명, 박사 2명에 불과했다. 해방되던 해 새로 졸업한 4명을 넣더라도 물리학자라 부를 만한 인원수는 16명내외였다. 그것이 지금은 물리학전공의 이학사만도 8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박사는 약 400명선에 가깝게 된다고 추산된다.

물론 물리학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과학자가 국내는 물론 멀리 미국이나 서독·영국등등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아깝게 죽음을 당한 李輝昭박사, 한창 일할 나이에 대동맥파열로 급사한 奏榮善박사는 크게 기대되는 물리학 박사였다. 또 李輝昭박사나 李元鏞박사는 언젠가는 노벨상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 크게 기대되었던 깊이있는 연구를 해놓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해방후 불과 30여년사이에 이루어진 성과였다는 점이다.

향학열 · 근면성 · 미래지향적철학

물론 모든 일이 그러했듯이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얼핏 보기에 해방후 30여년사이에 이룩된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성과도 사실은 그 밑에 뿌리깊이 내려있던 기초가 있었던 것이다.

그 기초란 첫째로 우리 민족 특유의 향학열과 교육열, 둘째로 근면성, 셋째로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李朝500년, 그리고 조금더 소급해 올라가면 高麗朝이래 1000여년동안 우리나라에는 科擧의 제도가 있었다. 兩班, 상놈의 계급사회속에서도 밑바닥 인생에게 돈까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과거제도였다. 이 제도에 의해 머리만 우수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만 한 사람이라면 출세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향학심과 교육열이 남달리 특출하게된 것이 우리 민족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던 서당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공부를 했다. 「출세만을 위한 공부」 자체는 별로 권할 것이 못되겠지만, 그러나 어쩔든 공부해보겠다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켰다는 것은 큰 성과였다. 그 결과 우리민족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더 「배움」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고, 또 학문(漢學이긴 했지만)에 대해 동경을 했던 것이다. 아마도 어쩌면 유대인들 보다도 더 향학심이 높았고, 교육열도 높았던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은 부지런도 하였다. 농경민족 특유의 근면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 게다가 孔孟의 가르침도 있었다. 집안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충효심을 발휘했던 것이다. 자기희생정신까지 깃들인 근면성에 의해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허만 칸도 평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민족은 미래를 밝게 보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일전에 외국의 모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 일이 있다. 즉, 우리 민족은 미래를 밝게 보고, 그 밝은 미래를 쟁취하려는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미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정신자세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다. 우리 민족은 그런 정신자세를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본다면, 그 원류는 좀 다를지 모르겠

지만 우리 민족과 유대민족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학문을 사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근면하게 노력하는 자세에 우리는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가능성을 점칠 수 조차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유대인들처럼 노벨상을 휩쓸 수는 없다. 노벨상을 받는다는 재능뿐만 아니라 주변 배경의 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벨상을 받는다는 국력도 어지간히 강해야만 한다는 것은 일본의 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급속도로 중진국으로 부상했고, 1990~2000년 대에는 그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1990년대말이나 2000년대초에 가면 어쩌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를 한 두 사람쯤 배출케 될런지도 모른다.

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키는데는 최소한 3대에 걸친 환경조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1대를 30년이라 치다면 약 90년 정도, 진보가 빠른 요새 같으면 약 70년정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일본이 그렇다. 명치유신 이래 1948년 陽川박사가 받을 때까지 80년정도는 걸렸으니 말이다. 또 陽川박사의 집안은 3대에 걸친 학자집안이기도 하였다.

학자할아버지 집안에서 학문적 분위기를 맞고, 학자아버지인 2대집안에서 학문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제3대쯤 되면 독창력도 생기고, 학문적 분위기도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의 漢學까지 포함시킨다면 슬슬 3대째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하여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캐빈디쉬 연구소의 창설자 J.J. 톰슨(190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예컨대 1930년대에 漢學하는 할아버지시대에 태어난 아버지가 대학교수의 길을 닦고, 1960년대에 태어난 제3세대에 학문에 대한 정열의 분위기를 전달했다면 이 제3대는 1990년대에 들어가 크게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1988년에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다. 이 올림픽과 더불어 갖가지 문화제전도 열리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포츠·문화·경제등등 여러 면에서 크게 국제사회에 부상하게 된다. 이런 빛나는 그리고 햇빛처럼 떠오르는 국가적 영광이라는 배경의 뒷받침을 받아 우리도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필자는 믿고 싶다.

물론 그 노벨 과학상 수상을 위해서는 국가나 또는 연구기관, 대학교가 학문연구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80년대 선진한국 저축으로 앞당기자

늘어나는 국민저축 이룩되는 불가안정